

세계일보

THE SEGYE TIMES 제5875호 6판 2007년 5월 12일 토요일

I 설왕설래

영국인에게 지리적 단절을 극복하게 해준 것은 1994년 개통된 유로터널이다. 대륙으로 가는 이동수단이라고는 배와 비행기뿐이었던 그들에게 철도나 승용차를 이용해 보다 손쉽게 대륙으로 오갈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배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려면 2시간가량 걸리던 게 30분대로 단축됐고, 런던에서 테제베를 타면 3시간 만에 파리에 닿을 수 있다. 영국인의 생활공간이 외딴섬에서 유럽 대륙까지 넓어진 셈이다. 세계 토목학자들이 20세기 최대 토목건축물로 유로터널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물론 50km의 해저터널을 뚫는 데 15조원의 공사비가 투입되고 최첨단 공법이 총동원된 점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유로터널과 같은 해저터널이 베링해협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러시아 시베리아와 미국의 알래스카를 잇는 베링해저터널은 길이가 100km 정도로, 유로터널의 두 배다. 베링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시베리아~알래스카~캐나다를 잇는 대륙 간 철도망 구축은 물론 러시아와 북미 간의 경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해저터널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가 추진하려다 무산된 베링해저터널 구상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 사업은 국내 통일그룹이 '피스킹 브리지'로 명명해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최근에는 러시아 정부가 가세하고 있다.



한일해저터널 논의도 활기를 띠는 모양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이 한일해저터널 건설 문제를 본격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해 워크숍을 가진 데 이어 오는 15일에는 국제세미나를 열어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일해저터널은 거제도(또는 부산)~대마도~규슈를 해저터널로 연결해 철도·고속도로를 놓겠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1980년대 초 거론된 후 학계를 중심으로 찬반 논쟁이 있었지만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터널이 건설되면 한국~일본이 자동차로 2시간대에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효과가 예상되지만 엄청난 건설비용 등 문제점이 만만찮은 것도 사실이다. 수면 위로 떠오른 한일해저터널 건설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두고 볼 일이다.

김선교 논설위원

世界日報 2007 年 5 月 12 日

【説往説来】 海底トンネル

イギリス人の地理的な断絶を克服させたのは 1994 年に開通されたユーロトンネルだ。大陸に行く移動手段としては船と飛行機だけであった彼らが鉄道や車を利用してより気軽に大陸へ往来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だ。船に乗って英仏海峡を渡るには 2 時間ほどかかっていたのが 30 分台に短縮され、ロンドンから TGV に乗れば 3 時間でパリに到着することができる。イギリス人の生活空間が離れ島からヨーロッパ大陸まで広がったことになる。世界の土木学者たちが 20 世紀最大の土木建築物としてユーロトンネルを数えるのをためらわないのもこうした背景からだ。もちろん、50 km の海底トンネルを掘るのに 15 兆ウオンの工事費が投入され、最先端の工法が総動員された点も関心を引くところだ。

ユーロトンネルのような海底トンネルがベーリング海峡でも具体化されている。ロシアのシベリアとアメリカのアラスカを結ぶベーリング海峡トンネルは長さが 100 km ぐらいで、ユーロトンネルの 2 倍だ。ベーリング海底トンネルが建設されれば、シベリア～アラスカ～カナダを結ぶ大陸間の鉄道網の構築はもちろん、ロシアと北アメリカ間の経済の架け橋の役割ををすると思われる。帝政ロシアの最後の皇帝であったニコライ 2 世が推進しようとして雲散したベーリング海峡トンネル構想が現実に近いに近づいているのだ。この事業は国内の統一グループが「ピースキングブリッジ」と命名し推進することにしたのに続き、最近ではロシア政府が加勢している。

日韓海底トンネル論議も活気を帯びている様子だ。ホ・ナムシク釜山市長が日韓海底トンネルの建設問題を本格論議に乗り出したのだ。釜山市はこれと関連してワークショップをもったのに続き、来る 15 日には国際セミナーを開き、公論化するという方針だ。日韓海底トンネルは巨済島（または釜山）～対馬～九州を海底トンネルで繋ぎ、鉄道・高速道路を敷くという大規模プロジェクトだ。1980 年代初めに論じられた後、学会を中心として賛否論争があったが、政府や地方自治団体レベルで公論化されるのは今回が初めてだ。このトンネルが建設されれば、韓国～日本が車で 2 時間台で繋がるので効果が予想されるが、莫大な建設費用など問題点も少なくないのも事実だ。水面上に浮かび上がった日韓海底トンネルの建設問題がどのような流れになるのか時間をかけてみなければならぬ。